건주여진의 발전과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

- 성화(成化) 3년의 역을 중심으로 -

채규철*

<차 례>

1. 머리말
2. 건주위(建州衛)의 설치와 건주여진(建州女眞)의 발전
3. 건주여진의 대외관계
4. 조, 명 연합군의 성립과 성화 3년의 역
5. 맺음말

【국문초록】

1467년 건주여진은 조명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성화 3년의 역 혹은 정해서정이라고 부른다. 이 성화 3년의 역을 통해 건주여진은 그들의 수장들을 모두 잃음으로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건주여진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명과 조선에 대항을 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주체적으로 기능하면서 후에 청 왕조를 건립하였다.(1644) 이 글에서는 건주여진이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이 살던 파저강 유역의 지리적, 지정학적 기반으로 보고자 한다. 파저강 유역 이주 후 건주

* 양주시 학예연구사

여진은 농경산업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고, 이를 통해 세력을 규합하였다. 이러한 건주여진의 움직임이 결국 조명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나, 결국에는 이들이 재기하는 기반 역시도 그동안 발전하였던 이들의 상황에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건주여진, 조선, 명, 성화 3년의 역, 정해서정

1. 머리말

15세기 여진 사회는 새로이 들어선 중국 왕조인 명(明)에 의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명조는 만주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요동도사(遼東都司)를 통한 지속적인 회유정책을 하였고, 그 결과 여진의 각 부족들은 명조의 위소제의 영역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이러한 명의 여진 회유 정책과 별도로 여진과 인접한 조선 역시도 북방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건주여진을 회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결과 여진은 명과 조선 사이에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건주여진이었다. 이 건주여진은 명과 조선의 사이에서 화전양면 정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명과 조선의 연합군에 의해 침략을 받게 되는데 이를 중국에서는 성화 3년의 역이라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서정이라고 이른다. 이 성화 3년의 역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는 건주여진을 명과 조선에 종속된 개체로 보는 것이 그 특징이다. 조서인(刁書仁)[1]은 성화 3년의 역에 대한

1) 刁書仁, 「成化年間明與朝鮮兩次征討建州女眞」, 吉林大學, 『史學集刊』 1999年 第2期, 1999, pp. 35-39. ; 刁書仁, 「明成化初年對建州三衛用兵考述」,

원인을 건주여진의 약탈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성화 3년의 역이 건주삼위 수장의 입조와 그에 따른 억류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볼 때 부수적인 원인에 지나지 않는다.

왕진(王臻)은 성화 3년의 역을 조선의 양면적 정책에서 파악하고 있다.[2] 이미 조선은 1433년과 1438년 두 차례에 걸쳐 건주위(建州衛) 이만주(李滿住)를 공격하였다. 왕진은 이를 성화 3년의 역과 연결하여 조선이 건주여진에게 강온양면적 정책을 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성화 3년의 역이 일어나기 전인 1450년대에 이미 건주여진에 대한 조선의 회유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조선의 강온양면적 정책이 맞을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단순히 조선의 정책으로 보기에는 명의 출병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당시 조선이 출병에 임하면서도 명조와의 관계 유지에 더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조선의 강온양면적 정책에서 나타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반면 변좌경(邊佐卿)[3]은 성화 3년의 역을 건주여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성화 3년의 역이 명의 이민족 차별 체제와 수탈 체제에서 일어났다고 보고 있어 건주여진의 시각에서 보고 있기는 하지만, 건주여진을 명의 영역 내의 부족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건주여진이 이 시기 명의 위소제의 영역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명조는 당시 여진위소(女眞衛所)를 기미정책(羈縻政策)으로 관할하였기 때문에, 여진위소에 대한 지휘권은 명조가 아닌 여진 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다. 또한 건주여진을 명의 영역으로 보면 성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 2008年 12月 18-4, 2008, pp. 24-32.

2) 王臻, 「建州女眞李滿住部與朝鮮王朝的關系探析」, 遼寧省民族研究所, 『滿族研究』 2007-4, 2007, pp. 86-92.

3) 邊佐卿, 「試論丁亥之役」, 遼寧省民族研究所, 『滿族研究』 1994年 第4期, 1994, pp. 8-13.

화 3년의 역을 명조 내부의 반란으로 볼 수도 있는데, 명조가 내부의 반란에 대해 조선에 출병까지 요청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원전일귀(園田一龜)[4]의 연구는 성화 3년의 역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는 건주여진과 조선과의 관계 악화를 언급해주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건주여진은 조선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명의 회유에 응하여 입조(入朝)를 하였고, 이 입조에서 명조는 건주여진을 공격할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파저강(婆猪江) 유역에서의 농경 산업을 토대로 일어난 이들의 세력 규합으로 대표되는 건주여진의 발전상에 대한 언급은 미흡하다.

국내의 연구 성과들은 실제로 성화 3년의 역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에 남의현의 연구들은 건주여진에 대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있다.[5] 남의현은 명이 영락(永樂) 연간(1403~1424) 이후 벌어지는 요동도사의 붕괴와 건주여진의 발전 상황을 제시함으로서 이 시기 건주여진과 명조와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영락연간 이후 만주지역 여진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박원호[6]는 영락연간과 선덕(宣德)연간(1426~1435)의 건주여진 문제를 통해 이 시기 건주여진과 조선, 명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영락연간은 건주여진이 명조에 기대

---

4) 園田一龜, 『明代建州女直史研究(續篇)』, 東京: 東洋文庫, 1953.

5) 남의현, 「15세기 명의 여진지역 진출시도와 여진의 성장」, 강원대학교사학회, 『강원사학』 21, 2006, pp. 125-148. ; 남의현, 「명대 올량합·여진의 성장과 요동도사의 위기」, 만주학회, 『만주연구』 3, 2005, pp. 131-155. ; 남의현, 「명대전기 요동과 몽골·여진의 동향」, 명청사학회, 『명청사연구』 25, 2006, pp. 29-65.

6) 박원호, 「영락연간의 명과 조선간의 여진문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85, 1991, pp. 237-258. ; 박원호, 「선덕연간 명과 조선간의 건주여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88, 1992, pp. 135-160.

어 발전하고 있던 시점이고, 선덕연간은 이제 명조가 적극적인 대외 경략을 포기해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양 시기를 비교할 수 있으며, 건주삼위(建州三衛) 형성 이전의 여진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본 고에서는 파저강(婆猪江) 유역 이주 이후 건주여진의 발전상을 통해 성화 3년의 역을 다뤄보고자 한다. 비록 성화 3년의 역에서 건주여진은 패배하였고, 위기를 맞이하지만, 건주여진이 다시 재기한다는 측면에서 앞선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15세기 건주여진이 명과 조선 사이에서 단지 존재하기만 하였던 여진의 한 부족이 아닌, 명과 조선 사이에서 능동적인 하나의 변수로서 존재하였고, 성화 3년의 역에서 위기를 맞이하지만 앞선 파저강 유역에서의 독자적 발전상으로 인해 재기할 수 있었음을 드러냄으로서 15세기 동북아시아에서 건주여진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보고자 한다.

2. 건주위(建州衛)의 설치와 건주여진(建州女眞)의 발전

정난(靖難)의 변(變, 1398~1401)으로 황제에 오른 영락제(永樂帝, 1402~1423)는 적극적인 대외 경략 정책을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여진으로의 진출 시도는 영락연간의 5차례에 걸친 몽골 친정과 관련이 있다. 당시 여진이 살고 있는 만주 일대는 명의 몽골 친정군의 배후에 위치하여 명조는 여진을 회유함으로서 그 배후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건주위의 설치였다. 건주위는 여진 호리개부(互利皆部) 족장 아합출(呵哈出)의 입조에 따라 설치되었다.(1403)[7] 명조는 건주위를 설치하고 아

7) 『明太宗實錄』, 永樂 元年 11月 辛丑.

합출을 건주위지휘사(建州衛指揮使)로 임명함으로서 이들 여진 세력을 위소제 아래로 편재하였다. 건주위는 여진위소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되었으며, 이 시기 명조의 대여진 정책에 중추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아합출은 영락제가 즉위 전, 연왕(燕王)에 있을 때 딸을 바쳐 명 황실과 인척관계를 맺고 있어[8] 명의 여진정책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결과 영락 7년에 이르러 명조는 만주지역에 130여개의 위소를 설치하는 성과를 얻었다.[9] 이 시기 조선 역시도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아합출을 앞세운 명의 회유정책에 밀려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명은 조선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회령의 오도리(吾都里) 족장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를 입조시킴으로서 여진에 대한 영향력에서 결정적으로 우위를 점하였다. 아합출은 여기에서 동맹가첩목아의 존재를 명조에 알림으로서 명조가 그를 회유하도록 유도하였다. 하지만 아합출의 존재는 다른 의미에서 여진 족장들의 입조를 유도하고 있었다. 여진 족장들이 명에 입조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진 사회에서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동맹가첩목아 역시도 아합출에 의해 자신의 세력이 빼앗길까 염려를 하고 있었고, 동맹가첩목아 입조 이후 두만강 유역의 족장들 역시도 동맹가첩목아에게서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명조에 입조하였다. 이는 당시 여진사회에서 조선에 비해 명에 입조하는 것이 자신의 세력을 지키고 그 세력을 확대시키는데 유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명은 동맹가첩목아 역시 아합출과 마찬가지로 건주위지휘사로 임명하였다. 동맹가첩목아는 이후 자신의 세력을 데리고 건주좌위

---

8) 『朝鮮太宗實錄』, 太宗 4年 12月 庚午.
9) 박원호, 앞의 글, 1991, pp. 137-147.

(建州左衛)로 분위(分衛) 하였다.(1412) 이 시기 건주위는 명조에 의해 편재된 여진부족 외에도 스스로 건주위에 귀부한 여진부족들로 인하여 그 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인해 동맹가첩목아가 분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명조의 지원 아래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영락연간 건주여진의 발전 상황은 철저히 친명적인 그들의 대외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명과 건주여진은 15세기 초반 내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건주여진이 파저강 유역으로 이주하고 여기서 건주삼위를 형성하게 되면서 그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건주위는 이미 1423년 타타르의 침입에 따라 파저강 유역으로 이주하였다. 이에 반해 건주좌위는 동맹가첩목아가 잡혀있던 한인 쇄환 문제로 인해 양목답올(楊木荅兀)에게 살해되면서(1433) 위기를 겪었고, 그 결과 동범찰(童凡察, 동맹가첩목아의 동생)과 동창(童倉=童山, 동맹가첩목아의 차자)은 인근부족에게 위협을 느껴 파저강 유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1440) 이 과정에서 부친의 권력을 되찾고자하는 동창과 동범찰 간에 건주좌위 지휘권 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동범찰이 건주우위로 분위하게 되었다.[10]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파저강 유역의 건주삼위(建州三衛)가 형성되었다.

명에 의지하여 발전하던 건주여진은 파저강 유역으로 이동함으로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전의 발전 양상이 명조와의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발전인 것에 반해 이제는 건주여진이 파저강 유역의 지리적 지정학적 기반을 통해 독자적인 발전을 꾀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건주삼위가 위치한 파저강 유역은 현재의 혼강(渾江) 유역이다. 이 지역은 조선과 인접하면서도 요동과도 가까운 지역이었다. 파저강 유역의 지리적, 지정

10) 자세한 내용은 남의현, 앞의 글, 2005, pp. 145-146을 참조.

학적 이점은 이들의 발전에 큰 자극이 되었다. 우선 파저강 유역의 지리적 이점은 농업이 발전하기 적합한 토양과 기후를 지녔다.[11] 아직 수렵과 채집 단계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건주여진에게 파저강 유역의 지리적 이점은 새로운 산업, 즉 농경을 시작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농경을 시작하려면 경우(耕牛)와 농기구도 필요하였으며, 그들에게 농경을 가르쳐 줄 사람 역시도 필요하였다. 이러한 제반 조건들은 파저강 유역의 지정학적 이점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명, 조선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건주여진은 명과 조선에 농경에 필요한 자원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주여진은 명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개원(開原)과 요동을 드나들면서 철기와 우마 외에도 생필품을 교역하였다. 또한 조선의 변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역을 하였다. 이러한 건주여진과의 교역은 조선의 변경 역량에도 영향을 주었고 조선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금령을 통해 여진과의 교역을 막기도 하였다.[12] 건주여진의 농경 자원 확보는 교역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약탈을 통해 한인과 조선인(朝鮮人)을 대거 유입시켜 농경에 종사시켰다. 물론 건주여진의 요동 약탈이 『명실록(明實錄)』상에서 "정통(正統) 14년(1449) 이래"라고 기록되어있다는 점에서 15세기 초반 약탈에 의해 데려온 사람들은 대체로 조선인이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1431년에서 1433년 사이 명조의 세 차례에 걸친 한인 송환에[13] 오히려 건주여진은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다는 점에서 건주여진이 한인을 약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 건주여진은 약탈과 입조를 반복하는 조선과의 관계를 통해 농경에 필요한 노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건주여진 내에 한인이

11) 『朝鮮世宗實錄』, 世宗 20年 8月 庚申.
12) 李健才, 『明代東北』,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86, p. 168.
13) 李健才, 같은 책, p. 166.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여진부족들 사이에 거래의 형태로 한인들을 데려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15세기 7, 8세의 어린 아이의 경우 말 1필이었으며, 성년이 다 된 노예의 경우는 우마(牛馬) 20여 두로 거래되었다.[14] 약탈과 매매 이외에는 변경에서 종종 납치를 하거나, 요역을 피해 건주여진으로 도망 온 사람들을 농업에 종사시키는 방법이 있었다. 건주여진은 명과 조선 양측의 변경 지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농업 인력유입이 가능하였다. 조선과 명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는 원래 건주여진의 생업 수단이었던 수렵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원래 건주여진은 뼈로 만든 화살촉을 이용해 사냥을 하였는데, 교역으로 인해 철기가 유입됨으로서 성화(成化, 1465~1487) 연간에 이르러서는 다수가 철로 만든 화살촉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15] 실제로 조선에서는 금령을 통해 이들과의 교역을 중단시키기도 하였으나, 건주여진의 초피(貂皮)를 얻고자 하는 밀거래는 성행하였다.

이 결과 건주여진은 농경 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미 1437,8년 사이 건주여진은 교역에 의해 얻은 소들로 개간을 진행하고 있었고, 특히 이만주의 부락에서는 가옥을 지어 다년간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모습이 나타났다.[16] 물론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렵과 채집에 의한 경제활동은 아직까지 일정한 비중을 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상은 파저강 유역의 지리적, 지정학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특히 지정학적 요인, 즉 명과 조선에 인접하여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좋은 지역에 위치하였다는 사실은 다른 여진부족에 비해 이들 건주여진이 농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

14) 『朝鮮成宗實錄』, 成宗 14年 3月 己酉 ; 『朝鮮成宗實錄』成宗 22年 2月 甲子.
15) 『朝鮮成宗實錄』, 成宗 5年 12月 乙巳.
16) 『朝鮮世宗實錄』, 世宗 19年 6月 己巳 ; 『朝鮮世宗實錄』世宗 20年 8月 庚申.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신문물의 유입,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농경의 시작으로 건주여진은 그 규모를 점차 늘려나가기 시작하였다. 당시 건주삼위의 규모는 건주위 이만주 관하의 1700호, 건주좌위 충상(充尙=童倉)과 건주우위 보하토(甫下吐, 동범찰의 아들) 관하의 600호[17]로서 2300호 정도였다. 이 기록은 1450년의 기록으로서 건주삼위가 파저강 유역에 모인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만주 관하의 1700호는 이만주가 파저강에 이주한 1423년 당시 건주위의 규모가 1천호 정도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호구 수의 증가는 자연 발생적이라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이 사이에 이만주는 두 차례 조선의 침입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만주의 부락이 1700여 호로 증가한 것은 당시로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였을 것이다. 건주좌위와 건주우위의 600여 호 역시도 1440년 이들이 회령을 떠날 때의 300여 호의 규모에 비하면 10여년 사이에 두 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파저강 유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적, 지정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주변의 다른 부족들에 비해 우위를 나타내면서 그 세력들을 규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당시 해서(海西) 여진 1000여명이 파저강 유역에 거주했다고 하고 있어, 건주여진은 건주삼위의 연합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부족과의 연합 역시도 모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건주여진은 이러한 발전상을 토대로 토목보(土木堡)의 변(1449) 이후 북변 방어 체계가 혼란한 명의 요동지방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15세기 초반 건주위 설치시기부터 건주삼위 형성까지 이들은 주변의 명과 조선에게 끌려 다녔지만, 사회경제적 발전과 건주삼위의 연합을 토대로 이들은 명과 조선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이제는 독자적인 새로운 외교방식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친명적인 성향이 강했던 건주여진은 더 이상 명에 기대지 않았고,

17) 『朝鮮文宗實錄』, 文宗 1年 8月 甲戌.

건주삼위 외에도 주변의 모련(毛憐), 해서여진까지 규합하여 명을 공격하였다. 반대로 조선에게는 접근하며 1450년대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명과 조선이라는 강대국을 사이에 둔 건주여진의 행보는 물론 명과 조선 양측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성화 3년의 역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지만 파저강 유역을 기반으로 한 건주여진의 사회 경제적 발전은 성화 3년의 역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이 지속적으로 명과 조선 사이에서 기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건주여진은 성화 3년의 역 이후 건주삼위의 수장들이 모두 죽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건주여진은 15세기 초, 중반 이룩한 파저강 유역에서의 발전상을 토대로 주변 다른 여진부족들을 규합하여 끊임없이 명과 조선에게 대항하였다. 파저강 유역의 지리적 지정학적 위치는 이들에게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3. 건주여진의 대외관계

명조는 15세기 초, 건주여진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명조는 실제로 아합출 일족에게 사성[18]을 해주었고, 조공 관계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 그 결과 건주위는 선덕(1426~1435), 정통(1436~1449) 연간 매년 조공을 하여 명의 선진문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건주좌위 역시도 건주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동맹가첩목아가 회령에 거주하던 1423년에서 1433년 사이에 7

18) 아합출(呵哈出)은 이사성(李思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고, 아합출의 뒤를 이어 건주위지휘사(建州衛指揮使)가 되는 석가노(釋家奴)(이사성의 아들)는 이현충(李顯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이후 건주위지휘사가 되는 이만주(李滿住)(이현충의 아들), 이고납합(李古納哈)(이만주의 아들)도 모두 이씨(李氏) 성을 사용하였다.

차례 조공을 하여 명조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명조가 선덕 10년(1435) 이래로 명조가 여진 조공인 수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19] 건주여진과 명의 관계는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파저강 유역에서의 사회경제적 발전 및 건주삼위의 형성, 주변 부족의 규합을 통하여 건주여진은 이전에 비해 그 세력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토목보의 변을 기점으로 건주여진은 "낮에는 조순(助順)하고, 밤에는 약탈하는"[20] 강온양면적인 방법을 통해 명조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약탈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명조의 회유에 응하여 입조를 하여 회사품을 받고 그들의 관직을 높여갔다. 특이 건주여진의 약탈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경태(景泰) 원년(1450) 5월에 일어난 건주여진과 해서여진의 요동 약탈로서 그 규모가 1만 5천명에 달했다.[21] 또한 성화연간에 이르면 건주위를 비롯한 여진 세력들이 한 해에 97차례 침입하여 잡아간 한인의 수가 10만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음에서[22], 파저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여진 세력의 결집은 명조의 입장에서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었다. 당시 명조는 토목보의 변 이후 북방 방어 체계의 혼란과 더불어 관료의 사치와 부정부패로 인해 많은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실제로 천순(天順, 1457~1464), 성화(1465~1487) 연간에 이르러 형양(衡陽), 광서(廣西), 사천(四川) 등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이런 까닭으로 명 왕조는 많은 국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23] 이러한 상황에서 건주여진은 지속적으로 요동지방을 약탈하였고, 그들의 부를 채워나갔다.

---

19) 刁書仁, 앞의 글, 2008, pp. 25-26.
20) 『明憲宗實錄』, 成化 3年 正月 庚午.
21) 『明英宗實錄』, 景泰 元年 5月 癸丑.
22) 『朝鮮中宗實錄』, 中宗 38年 正月 丁未.
23) 邊佐卿, 앞의 글, 1994, p. 8.

건주여진이 요동을 약탈하기 시작할 무렵 건주여진과 조선의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까지 조선을 약탈하였던 건주여진이 이제 조선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는 당시 조선의 내부 상황과도 관련이 있었다. 조선의 왕이었던 세조(1455~1468)는 찬탈의 과정을 통하여 등극하였다. 세조는 국내의 복잡한 정세를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쳐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는 적극적인 여진 정책으로 구현되었다. 이러한 조선의 내부적 상황은 건주여진에게 있어 새로운 대외관계를 모색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여진 회유에 대해 건주여진은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실제로 1450년 이만주(李滿住)가 조선을 침입한 이후 1450년대 건주여진의 조선 침입은 일어나지 않았다.

조선은 여진에게 면포, 마포, 의복, 마필을 주는 경제적 지원 외에도 관직을 수여하였다. 건주여진은 일찍이 조선 건국 초 동맹가첩목아가 상호군(上護軍)에 임명된 바 있었다. 하지만 세조 시기에는 상호군보다 높은 정 2품 정헌대부(正憲大夫)에 건주여진 수장들을 임명하였는데, 1458년 건주위 이고납합(李古納哈)과 건주좌위 동창에 대하여 이 관직을 수여함으로서 조선의 건주여진 회유는 절정에 달하였다. 건주여진 역시도 1458년 6차례에 걸쳐서 조선에 입조함으로서 조선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건주여진은 여전히 명조의 관직을 받고 있었고, 명조에 대하여 약탈과 입조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직 또한 계속 높여가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관직수여의 형태는 명조의 개입을 야기하였다. 명조는 천순 3년(1459) 4월 조선에 칙사를 보내어 경고를 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 파견된 성절사 일행에게 경고의 내용이 담긴 칙서를 주었다. 명조는 조선과 건주여진의 교류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중관직수여의 문제는 명조의 입장에서는 묵인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조선이 관직을 수여했다는 것은 명과 동등하다는 것으로 명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조선의 과감한 여진 회유 정책은 다수의 여진이 조선으로 흡수되어 조선과 여진의 연합을 우려할 수도 있었다.[24]

명조는 이러한 조선에 대한 경고 외에도 건주여진에게도 사신을 보내어 경고를 하였고, 조선에게 관직을 받지 않은 건주우위 동납랑합(童納郎哈)의 관직을 올려주는 대신 조선에게 관직을 받은 이고납합과 동창에 대해서는 관직을 올려주지 않는 제재조치를 단행하였다.[25] 명조의 신속한 조치는 결국 조선이 여진 회유를 철회하는 결과를 낳았다. 조선은 1460년에 이르러 건주여진의 잦은 왕래를 막기 시작하였다.[26] 이는 조선에게 있어서 명조와의 외교가 건주여진과의 외교보다 중요하였기 때문에 나온 조처였다. 조선은 지속적으로 명조에 대해 사대하였고, 명조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권 내에서 그 위치를 보장받고 있었다. 건주여진과의 통교를 통한 대여진 영향력 회복보다도 명조와의 외교가 더 중요했던 조선은 결국 여진 회유 정책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1450년대 건주여진의 대외노선 변화는 주목할만한 사실이었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이를 이은 세력규합은 이전과 같은 명에 의존한 발전이 아닌 자발적인 발전이었고, 이러한 자발적인 발전은 이제 건주여진이 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 대외노선을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그것이 1450년대 건주여진과 조선의 연계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제 건주여진은 15세기 초와는 달리 명과 조선이라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새로운 변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것은 이후 명과 조선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하지만 건주여진의 대외노선 변화는 1460년대 또 다른 위기를 암시하고 있었다.

---

24) 남의현, 앞의 글, 2005, p. 148.
25) 『明憲宗實錄』, 天順 3年 5月 戊申.
26) 『朝鮮世祖實錄』, 世祖 6年 8月 乙卯.

조선이 여진 회유 정책을 중단한 가운데 건주여진은 조선을 침입하였다.(1461) 하지만 이번 건주여진의 조선 침입은 이만주와 동창과 같은 수장이 아닌 건주여진 소족장 가운데 하나인 조삼파(趙三波)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삼파의 조선 침입은 많은 의문점을 품고 있었다. 특히 이만주는 조삼파의 조선 침입을 반대하여 조선에게 이들의 침입을 미리 알려주고 있었고, 조삼파가 약탈한 물품의 일부를 조선에게 돌려주고 있었다. 이는 당시 건주위 내에서 이만주의 권력 승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만주는 오랜 기간 건주위 수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파저강 이동 당시에도 이만주가 수장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약 40여 년을 건주위 수장으로 보낸 셈이었다. 이는 이만주의 나이가 상당했음을 의미하였다. 이미 1450년대부터 이만주는 그 장자인 이고납합에게 권력을 승계하고 있었다. 명조 역시도 이고납합에게 관직을 수여함으로서 건주위를 관장하게 하였고, 조선에게서 관직을 받은 것도 이만주가 아닌 이고납합이었다. 이만주는 정통 연간 이후 명조에서 관직을 받지 않았다. 이제 이고납합이 이만주를 대신하여 명과 조선에 입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조삼파는 조선을 침입하고자 하였고, 이만주는 반대를 하였다. 이만주의 통제력은 예전과 같지 않았고, 조삼파는 무리들을 규합하여 조선을 침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 조삼파와 같은 소족장들은 이만주 부자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조선은 건주여진의 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그 결과 통제력이 떨어졌던 이만주와 이고납합 등에게 조삼파가 잡아간 인축을 쇄환하도록 하였다.[27] 그리고 그 결과가 마땅치 않자, 이만주를 침략의 배후로 인식하게 되었다.[28] 당시 조선이 이만주를 침략

27) 『朝鮮世祖實錄』, 世祖 7年 10月 丁卯.
28) 『朝鮮世祖實錄』, 世祖 7年 10月 癸未.

의 배후로 인식했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미 이만주는 조선을 수차례 공격한 경험이 있었고, 특히 조선 세종 시기에는 조선에서 이만주를 토벌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서 파병한 전력이 있었다. 결국 조선은 건주여진을 공격하고자 하였고, 특히 세조는 건주여진을 멸망시키고자 하였다.[29] 여기에 대해 이만주는 조삼파를 공격할 때 자신들은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함으로서 의심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30] 실제로 공격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조선과의 관계는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조선과의 관계 악화는 건주여진에게 외교적 고립을 가져다주었다. 이 상황에서 명 조정은 성화 3년 정월 금의위(錦衣衛) 도지휘사(都指揮使) 무충(武忠)을 건주여진에 사신으로 파견하여[31] 같은 해, 4월 건주삼위 수장들이 명 조정에 입조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결국 이들 건주삼위가 한꺼번에 조공한 것은 당시 조삼파의 침략에 영향을 받은 조선 측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32]

4. 조, 명 연합군의 성립과 성화 3년의 역

건주삼위 수장들의 명조 입조는 1467년 4월 28일에 이뤄졌다. 그들은 양마 및 초피 등을 진헌하여 표면상 형식적으로 공손함을 표하였다. 명 헌종(憲宗) 역시도 그들의 조공을 기뻐하여 그들을 궐 아래에서 친견하고, 칙유를 내려 전일의 변경을 범한 죄

29) 『朝鮮世祖實錄』, 世祖 10年 4月 甲申 ; 『朝鮮世祖實錄』, 世祖 10年 5月 乙丑.
30) 『朝鮮世祖實錄』, 世祖 10年 10月 乙巳.
31) 刁書仁, 앞의 글, 1999, p. 36.
32) 園田一龜, 앞의 책, p. 20.

를 용서하고 잡아간 사람을 모두 송환할 것을 명하였다.[33] 건주삼위 수장이 같이 북경에 입조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들 가운데 이고납합은 천순 6년(1462), 동납랑합은 경태 3년(1452), 동창은 성화 원년(1465) 정월에 각기 조공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34] 하지만 이들이 나란히 입조했다는 것은 당시 조선과 경색된 외교적 활로를 명조를 통해 풀어보고자 한 의지가 절실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명조의 목적은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명조는 이번 회유를 통해 잡혀간 자국민들을 송환하고, 건주여진의 요동 침입 재발을 막고자 하였다. 명조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군대를 출병시킬 계획 또한 가지고 있었다. 명조의 이번 회유는 단순한 회유가 아닌 무력을 바탕으로 한 화평유지책이었다.[35] 그러나 건주여진에게 한인 송환은 농경을 진행하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들어 줄 수 없는 조건이었고, 요동 지방 침입 문제 역시도 당시 건주여진의 주수입원이 요동지방 약탈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건주여진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이전 명조는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건주여진과 화평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력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건주여진의 입장에서 경제적 반대급부는 주어질 수 없었고, 결국 이는 양측의 갈등만 심화될 뿐이었다. 이에 이고납합과 동창 등은 돌아가면 해서야인을 규합하여 변경 지방을 공격하겠다[36]고 말하며 불평하였고, 명조 역시도 건주삼위 수장들이 입조하고 있던 1467년 5월에 무정백(武靖伯) 조보(趙輔)와 요동 총독군무(總督軍務) 이병(李秉)을 정로장군(征虜將軍)으로 삼아 군사를 확충하여 건주

33) 園田一龜, 같은 책, 1953, pp. 20-21.
34) 園田一龜, 같은 책, 1953, p. 20.
35) 園田一龜, 같은 책, 1953, p. 10.
36) 『明憲宗實錄』, 成化 3年 5月 癸巳.

여진을 토벌하도록 명하였다.[37]

명조의 움직임은 조공을 마치고 돌아가던 동창 일행을 광녕에 억류함으로서 본격화되었다. 명 조정에서는 동창 광녕에 억류시킨 채로 이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물론 동창 일행을 돌려보내자는 온건한 대책들도 있었지만, 동창 일행을 죽이고 한인들을 송환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대책들이 득세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와중에 명조는 동창의 일행 일부를 돌려보내어 건주여진에게 경고하는 한편, 자국민을 송환받고자 하였다. 명 조정의 논의는 헌종이 최종적으로 건주여진에 대한 강경정책을 수용함으로서 끝을 맺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담은 칙서를 동창에게 보냈다. 칙서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칙서의 내용을 들은 동창 등은 광녕에서 폭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명조는 건주여진을 공격할 명분을 쥐게 되었다. 명조는 사로잡은 동창 일행을 북경으로 압송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전쟁을 준비하였다.

1467년 9월에 이르러 명은 건주여진 공격 준비를 완료하였고, 출병하는 명군의 규모는 5만의 규모였다. 명군의 성과에 대해서는 『명헌종실록』의 성화 3년 10월 21일과 10월 29일에 나타난 이병과 조보의 보고로 그 성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건주여진의 수장인 동창은 잡혀 있었고, 명군의 규모가 건주여진의 숫자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보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37) 『明憲宗實錄』, 成化 3年 5月 己丑.

〈표 1〉 명군의 건주여진 공격 성과[38]

군명[39]	지휘관	여진군 포로	여진인 포로	참수	되찾은 한인
좌초(左哨)	승위랑(丞韋朗)	6	54	125	247
좌액(左掖)	왕영(王瑛), 왕전(王銓)	18	28	64	218
중영(中營)	이병(李秉), 조보(趙輔), 가충(柯忠)	27	24	56	252
우초(右哨)	미상	15	29	134	195
우액(右掖)[40]	배현(裴顯)	31	16	259	253
총 계		97	151	638	1165

하지만 위의 기록에서 보면 5만의 병력을 동원한 것에 비해 그 전과는 미미하다. 이는 명군의 출병 소식을 들은 여진족들이 미리 피하였거나 숨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실제 보고에서도 적이 숨었다는 기사가 곳곳에 나타나며, 명군이 오기 전에 이미 피하여 비어 있는 성채도 있었다. 명군은 공격 내내 국지전을 하였고, 이 전쟁의 성패를 가를만한 큰 전투는 없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출

38) 『明憲宗實錄』, 券47, 成化 3年 10月 甲寅 ; 『明憲宗實錄』, 券47, 成化 3年 10月 壬戌.

39) 중영(中營), 좌초(左哨), 좌액(左掖)군의 기록은 『明憲宗實錄』 成化 3年 10月 甲寅 條에 나타나 있으며, 우초(左哨), 우액(右掖)군의 기록은 『明憲宗實錄』 成化 3年 10月 壬戌 條에 나타나 있다. 성화(成化) 3년 10월 21일에는 이병이 중영, 좌초, 좌액의 전과를 보고하였고, 10월 29일에는 이병과 조보가 같이 우초, 우액의 전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중영, 좌초, 좌액은 가까이 있었음에 반해, 우초, 우액군은 중영과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전과를 확인하는데 시일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40) 이병과 조보가 보낸 성화(成化) 3년 10월 29일 기록을 확인해보면 우액이라고 따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앞의 지휘관 미상의 부대에 대해 우초군이라 하면서 이들의 전과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따로 배현의 부대에 대한 전과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배현의 부대가 우초군과 더불어 움직이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전과를 올렸다는 점에서 배현의 부대가 우액군으로 보인다.

병한 장수들이 늘려서 말한 것일 수도 있다. 사실 두 번에 걸친 보고에도 불구하고 전첩보고 내내 여진의 피해만 언급되어 있지, 명군의 전사자나 부상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41]

하지만 명군 출병의 성과는 자국민들을 되찾아 온 것에 있었다. 실제로 건주삼위 수장들의 입조 때부터 명은 노예가 된 자국민들의 송환을 요구해 왔었다. 그 결과 1165명의 자국민들을 되찾아 올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참수내지는 포로로 잡은 여진인들의 숫자를 합쳐도 되찾은 한인노예의 숫자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군은 전쟁 수행 기간 동안 자국인의 송환에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명은 성화 3년 8월 조선에 대해서도 출병을 요청하였다. 이미 성화 3년 4월 건주여진에게 의주를 침공 당했던 조선은 명의 출병 요청에 받아들여 전쟁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미 조선은 성화 3년 5월에 건주여진을 공격하고자 하였지만, 이시애의 난으로 인해 그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시애의 난은 같은 해 8월에 진압되었고, 이에 명의 출병 요청이 이르자 조선은 건주여진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조선의 출병은 단순히 명의 출병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이미 이전부터 건주여진을 공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명조의 출병 요청은 조선에게는 건주여진 공격의 기회로 작용하였다.

8월 27일 세조는 윤필상(尹弼商)을 평안도선위사(平安道宣慰使)로 임명하면서 건주위 공격을 총괄케 하였다. 여기에서 세조의 몇 가지 지침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출병하는 조선군이 대처해야 할 것들이 나타난다.[42]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주여진 출병에서 요동에서 건주위 공격 요청을 한 것은 황제의 성지

41) 園田一龜, 앞의 책, 1953, p. 48.
42) 『朝鮮世祖實錄』, 世祖 13年 8月 庚申.

를 받든 것이지만, 무작정 따르지 말고 황제의 칙서가 있는 연후에 따르라고 하고 있다. 황제의 칙서를 받기 전에 명군 장수를 따라 적을 치다가 일을 그르칠 경우 그 책임전가를 우려한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명군의 요구에 대한 조선의 응대 방법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세조의 지침이 가장 많은데, 조선군의 출병에서 세조가 가장 중히 여긴 부분이라 볼 수 있겠다. 일단 명군이 군사를 합하여 같이 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며, 전하의 명이 적을 공격한 뒤를 조력하라고 하였다."라 함으로써 조선군이 명군으로 합류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고, 명군이 병력 수를 늘리라고 할 경우에는 "1만 명이면 건주위를 칠 수 있다."라 함으로써 이들의 요구에 대처하라고 하고 있다. 또한 명군 측에서 일을 논의하고자 그들 진영으로 부른다하여 함부로 진영을 비우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 역시도 위와 같이 조선군이 명軍의 요구대로 휘둘릴까 염려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명군이 압록강을 건너 길을 빌리겠다고 요구할 경우에도 배가 없고, 길이 험하다는 이유로써 거절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조선 경내로 들어와 저지를 폐단을 막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응대방법들은 명조에 대한 예의는 지키되 조선군이 명군에 종속된 것이 아닌 조선 왕의 군대로서의 독자성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전투에 참여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지침이다. 세조는 여기에서 명군의 형세를 보고 전투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명군이 불리하면 여진을 공격하지 말 것이며, 명군이 유리할 경우 더불어 공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침들에서 볼 때, 당시 명과 조선은 국력이 같지 않았고, 조선은 명에 사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연합군의 출병에서 조선은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명조와의 관계적 측면 역시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기회만으로는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지침들을 안고 출병한 조선군

은 9월 26일 건주위를 공격하였다.

〈표 2〉 조선군의 성과[43]

참수	포로	되찾은 한인
286 (李滿住, 李古納哈 포함)	23	7 (남자1, 여자6)

위의 성과는 이만주, 이고납합 산하에 직속한 부락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군이 명군처럼 옮겨 다니면서 이들을 공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군의 공격은 기습전으로 전개되어 단 한 번의 공격으로도 비교적 성과가 컸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명군은 보름 가까운 기간 동안 5로 에 걸쳐서 옮겨 다니면서 공격했음에 반해 조선의 공격은 9월 26일에 집중되었고, 이후 일주일 정도 주둔하다가 회군하였다. 물론 조선이 이들 근거지와 가까운 곳이 붙어있어서 단 한 번에 적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었던 면도 있었다. 조선의 출병에서 가장 큰 성과는 이만주 부자를 죽인 것이었다. 15세기 초 이만주는 명조에 기대면서 조선을 수차례 약탈하였다. 비록 이만주가 늙어서 그 실권을 아들인 이고납합에게 넘겼다고는 하지만, 조선에게 있어서 이만주의 존재는 아직까지도 크게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이만주 부자를 죽였다는 뚜렷한 성과를 올렸음에도 조선은 안심할 수 없었다. 실제로 건주위를 공격하기로 약속한 날짜는 9월 28, 29일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공격은 9월 26일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조선은 다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명군 역시도 토벌기간 내내 건주좌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조선군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정황들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에서는 명조에 상주문을 올릴

43) 『朝鮮世祖實錄』, 世祖 13年 10月 癸丑.

때 9월 29, 30일에 공격이 이뤄졌다고 함으로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

5. 맺음말

건주여진은 15세기 초, 중반 명과 조선이라는 강대국을 사이에 두고 실리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하여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챙겨왔다. 이들은 건주위 설치 초기 명조에 의존하여 발전하였고, 명조의 위세를 바탕으로 하여 주변 여진 부족들에게 우위를 점해왔었다. 하지만 파저강 유역 이주 이후 이들은 파저강 유역의 지리적 지정학적 이점을 발판으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사회 경제적 발전은 농경 산업의 시작이라는 결과로 드러났고, 이전 시기 채집과 수렵에 의존한 이들의 경제 활동은 이제 새로운 변혁의 단계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이들은 이제 명조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그 발전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인근 부족을 규합하여 요동지방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와중에 일어났던 것이 이들의 외교 노선의 변화로 명과 조선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건주여진의 움직임은 명과 조선의 반발을 야기하였다. 명과 조선은 이제 건주여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었고, 그 결과 성화 3년의 역이 일어나게 되었다. 성화 3년의 역으로 건주삼위의 수장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그 결과 건주여진은 건주위 설치 이후 처음으로 위기를 맞이하였다. 성화 3년의 역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힘입은 건주여진이 이제는 명과 조선의 통제를 벗어나 그들 스스로가 명과 조선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었다. 명과 조선은 변경 지방의 안정을 위해 건주여진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하였다. 특히 명의 경우는 더

욱 그러하였다. 조선은 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건주여진 문제에서 명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명은 정통 14년 이후 지속적인 건주여진의 요동지역 약탈을 막기 위해 이들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하였으나, 건주여진은 이제 명조의 통제 아래에 있고자 하지 않았다. 물론 입조를 통한 관직의 승진은 하였지만, 이는 15세기 초 명조의 요구를 들어주고, 입조를 통해 그들의 경제적 욕구를 해소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일단 그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 명과 조선 양국을 이용하였고, 주변 세력을 규합하여 명과 조선의 변경지대를 침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성화 3년의 역은 명조의 입장에서 다시 건주여진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둘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명조는 성화 3년의 역 이후 건주여진에게 다시 온건한 정책을 취하였다. 명조는 건주여진의 요청에 따라 1468년 건주삼위를 재차 개설하였다. 대대적인 토벌로 건주삼위의 세력은 일시적으로 약해졌지만, 명조는 요동의 안정에 기여할만할 인물들을 건주삼위의 수장에 임명함으로서 안정적으로 여진과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명의 여진 통제는 지속적이지도 신속하지도 않았다.[44] 명조의 이러한 정책적 실수는 건주여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미 파저강 유역 이주를 통해 이룩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주변 부족과의 연계는 건주여진이 재차 요동을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다.

이 결과 성화 15년(1478) 10월 명은 조선과 연합하여 건주여진을 토벌하기로 결정하였다. 명군은 2만의 병력을 이끌고 건주여진을 공격함과 동시에, 조선에게 출병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명령을 접한 후 군신들 간에 출병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하여 출병은 지연되었다. 조선군은 이 때, 2로로 나누어 진군하였지만, 출병

44) 남의현, 앞의 글, 2005, p. 150.

한 군대는 압록강이 얼음으로 덮혀 건너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돌아갔다. 일부가 건주여진 근거지로 들어가 15명을 참수하는 결과를 올렸지만[45] 성화 3년의 역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명군은 이 때 659명을 참수하고 486명을 포로로 잡았다.[46]

당시 건주위의 공격은 요동도사에 새로운 압력으로 다가왔다. 특히 요동 방어에 필요한 각종 물자 및 식량의 공급은 요동도사에서 자체수급을 해야 했으므로 둔전이 황폐화되고 있던 요동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압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건주여진 역시도 명과 조선에게 수차례 타격을 받고 일시적으로 생산과 생활에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결국 1481년 건주위는 명조에 조공을 하면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다.[47] 건주여진은 성화 3년의 역 이후에 명조의 정책적 실수와 그들 내부의 발전 상황을 토대로 다시 재기하였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명과 조선에 대항을 하며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것으로 건주여진은 15세기 중반 명과 조선 사이에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고, 동북아시아에서 여전히 독립적인 주체로 기능할 수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겠다. 이러한 건주여진의 기반은 후에 동맹가첩목아의 6대손인 누르하치에 이르러 여진사회를 통일하고, 후금을 세우는 발판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17세기 초, 중반 건주여진은 오히려 명과 조선 양측을 공격하였다. 그 결과 조선에게는 정묘호란(丁卯胡亂, 1627),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을 통해 큰 타격을 입혔고, 이후 명이 이자성(李自成)의 난으로 붕괴되자 그 틈을 타 산해관(山海關)을 넘어 중국을 장악하였다.(1644) 17세기 중국을 장악한 건주여진의 기반은 15세기 파저강 유역을 기반으로 한 그들의 발전에 있었던 것이다.

---

45) 刁書仁, 앞의 글, 1999, p. 38.
46) 『明憲宗實錄』, 成化 15年 11月 丁未.
47) 남의현, 앞의 글, 2005, p. 152.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조선태종실록』
『조선세종실록』
『조선문종실록』
『조선세조실록』
『조선성종실록』
『조선중종실록』
『明太宗實錄』
『明憲宗實錄』
『明英宗實錄』

2. 논문

남의현, 「명대 올량합·여진의 성장과 요동도사의 위기」, 만주학회, 『만주연구』 3, 2005, pp. 131-155.
남의현, 「15세기 명의 여진지역 진출시도와 여진의 성장」, 강원대학교사학회, 『강원사학』 21, 2006, pp. 125-148.
남의현, 「명대전기 요동과 몽골·여진의 동향」, 명청사학회, 『명청사연구』 25, 2006, pp. 29-65.
박원호, 「영락연간의 명과 조선간의 여진문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85, 1991, pp. 237-258.
박원호, 「선덕연간 명과 조선간의 건주여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88, 1992, pp. 135-160.
邊佐卿, 「試論丁亥之役」, 遼寧省民族研究所, 『滿族研究』 1994年 第4期, 1994, pp. 8-13.
王臻, 「建州女眞李滿住部與朝鮮王朝的關系探析」, 遼寧省民族研究所, 『滿族研究』 2007-4, 2007, pp. 86-92.
刁書仁, 「成化年間明與朝鮮兩次征討建州女眞」, 吉林大學, 『史學集刊』 1999年 第2期, 1999, pp. 35-39.
刁書仁, 「明成化初年對建州三衛用兵考述」,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史地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 2008年 12月 18-4, 2008, pp. 24-32.

3. 단행본

園田一龜, 『明代建州女直史硏究(續篇)』, 東京: 東洋文庫, 1953.
李健才, 『明代東北』,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86.

(**투고일**: 2015. 7. 6 **심사완료일**: 2015. 7. 27 **게재확정일**: 2015. 8. 5)

채규철
소속: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주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전화번호: 010-8488-6843
전자우편: ranke84@korea.kr

[Abstract]

The Development of Jianzhou Jurchen and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 Focusing on the War of Third Year of ChengHua Period -

Chae, Kyu-Chul

In 1467, Jianzhou Jurchen was in for the attack from Joseon-Ming allied forces. This is called 'The War of Third Year of ChengHua Period' or 'Jeonghaeseojeong'. 'The War of Third Year of ChengHua Period', Jianzhou Jurchen came to face a crisis by losing all their heads. However, Jianzhou Jurchen overcame such a critical situation while again lining up against Ming and Joseon and functioning as independently in Northeast Asia, and they established the Ching Dynasty later(1644). This paper is going to look upon the reason for Jianzhou Jurchen's making a comeback as the geographical, geopolitical foundation of the Pajur river basin where they once lived. After moving to the Pajur river basin, Jianzhou Jurchen achieved socio-economic development represented by agricultural industry, through which they gathered forces. Such a movement of Jianzhou Jurchen came to be the reason for being under attack from the Joseon-Ming allied forces after all, but they finally managed to make a comeback on the strength of their circumstances, such as socio-economic development through agricultural industry and gathering forces around them.

Key words: Jianzhou Jurchen, Joseon, Ming, The War of Third Year of ChengHua Period, Jeonghaeseojeong